



## 연합예배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연합예배가 5월 25일 월요일 저녁 7시에 유튜브 "서울대 기독교인 연합 SNU Christian Union" 채널에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된다. 이번 연합예배는 김희석 목사님(총신대 구약학)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실 예정이다.

## 주요 기사 안내

- 1면 교수칼럼 ... 박정우 교수
- 2면 서기연대표 취임사 ... 홍영서  
중앙위 취임사 ... 서은진
- 3면 신입생들에게 편지 ... 이연희 학부모  
신입생들에게 편지 ... 박지연  
100호 광고 ... 편집부
- 4면 신입생의 글 ... 최유안  
신입생들에게 편지 ... 김병효
- 5면 신입생의 글 ... 신화영  
신입생들에게 편지 ... 정성지  
중앙위원 광고 ... 서기연
- 6-7면 단대기연 소개글
- 7면 선교단체 이야기 ... CCC
- 8면 선교단체 이야기 ... JOY  
신입기자 취임사 ... 이재백

## 교수칼럼

###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2020년 4월 23일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250만 명, 사망자는 18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미국, 이탈리아 등 피해가 큰 나라들은 국가 전체를 봉쇄하며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두고 일본의 수상은 제3차 세계대전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은 많이 좋아졌지만,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국제화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언제든지 바이러스의 대규모 재확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완벽한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에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모든 국가를 주관하실(마태복음 28:18) 뿐만 아니라 단돈 한 닢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0:29).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을 허락하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태를 통하여 자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반하여 이루어 놓은 물질세계의 한계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유입될지 예상할 수 없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긴장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감염은 개인의 사회적 위치, 명성, 재력과도 상관없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수상도, 세계적인 금융기업의 CEO도, 할리웃의 유명 연예인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할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이 이루어 놓은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이롭습니다.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흑사병, 결핵 등과 같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전염병의 통제 및 치료가 가능해졌고 암의 정복이 머지 않았다고 예상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변종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의 과학기술은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치료법과 백신이 개발되겠지만, 만약 더 높은 감염률과 치사율의 질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한다면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무리 바벨탑을 높게 쌓아보아도 하나님에 이를 수 없는 것 처럼 아무리 발전시켜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인류가 만들어낸 과학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든 인간의 삶은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가올 미래에 우리에게 무

슨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말에 중국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존재가 처음 알려지기 전에 그 누구도 2020년 4월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힘이 있는 대상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돈, 권력, 명예 등의 우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잘나가던 기업도 국가의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서 순식간에 도산위기에 처하게 되고, 한 국가 행정부의 수반이었던 대통령도 재판정에 서고 감옥에서 수십 년을 살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영원할 것 같아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서 다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치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죄로 인하여 끊어져 있던 하나님과의 관계회복만이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불확실한 미래에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반석이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연상됩니다. 출애굽 후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호렙산으로 올라가고 시간이 오래 지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이끌어 나온 모세가 없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우리의 신이다'라고 외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난잡하게 뛰어놀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세였던 것입니다.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며 애굽 군대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먹을 양식을 내려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은 잠시뿐, 다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집착하고 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분노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의 간청을 듣고 뜻을 돌이키신 후, 대신 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서운 전염병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깨닫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가나안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재앙을 허락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재앙을 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우치기 원하시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물질적 풍요로움에 취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경고의 종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 금송아지를 붙에 태우고 갈아서 재를 마시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박정우 교수(지구환경과학부)

## 서기연 대표 취임사

## 서기연의 모든 단체들이 나의 단체가 된다는 것



안녕하세요. 2020년도 서기연 대표로 섬기게 된 홍영서(자전 16)입니다. 제가 새내기 때 처음 학생회관 416호에 들어갔던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서울대기독교인연합 동아리방에 들어가면 '서울대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적혀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그 때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저는 제 마음에 찢림이 있습니다. 1학년 때의 저는 이 서울대 캠퍼스 안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넓은 서울대 캠퍼스에 기독교인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겠어,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대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유일한 주관자이심을 매우 명확하게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했던 마음속의 우울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고, 교환학생을 가서 낯선 땅에서 길을 잃어 너무나 두려웠을 때에 무엇도 절 해칠 수 없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음악에 자신이 없는 저를 새내기 신앙 OT 찬양 인도자로 세우셨으며, 문과생이었던 저를 컴퓨터 공학이라는 가장 자신 없는 학문으로 인도하시고 견뎌낼 힘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답이 없고 길을 잃어 두려워할 때 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건지시는 건 오직 구주 되신 예수님이심을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서야, 네가 왜 두려워하니? 내가 너의 도움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 앞에 저는 '주님, 당신만이 참된 유일한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대표 자리를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제게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첫째, 자고 있던 이 캠퍼스를 깨워라, 둘째, 주님의 말씀을 외치라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삼하 7:22)"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믿기에 올 2020년에 사랑하는 우리 캠퍼스 가운데 진정한 부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해 여러분들께 한 가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게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패배주의를 타파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 정말 가능할까?, 이 황폐한 것만 같은 서울대 땅에서 하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정말 돌아올 수 있긴 한 걸까? 이러한 생각들이 파(破)해지는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이 잠자고 있는 캠퍼스와 영혼들을 다시 깨우는 나팔소리가 되길, 하나님께서 받기 합당하신 찬양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길, 그리하여 어둠 속에 있던 이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뒤덮이는 시간이 되길 꿈꿉니다. 서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의 산 증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서울대 내의 11개 단대기연, 16개 선교단체와 20개 이상의 과기독모임, 즉 50개 이상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가득 차 흐르다면, 우리가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고,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 문입니다.

제가 대표가 되고 3월에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부끄럽지만 지금까지 제게 서울대 안의 50개의 공동체는 '나의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모든

단체가 정말 내 공동체라고 생각하며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셨기에 제가 각 공동체의 모든 대표님들을 한 분씩 불러가며 기도하는 습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서기연 지체들이 서로를 자신의 지체로 여기고 사랑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수고하시는 각 선교단체, 단대기연, 과기독모임의 대표님들을 위해, 대표님들께서 지치지 않고 그 모임에 주님께서 뜨겁게 임재하시길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짐에 따라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왜 하필 내가 대표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라는 생각은 스스로를 못난 대표로 여기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붙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몇 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성취됨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인내하여 주님의 약속을 받는 서기연이 되길 기도합니다.

2020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새로운 마음과 충만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기시고 매 순간을 새롭게 세워 가시는 예수님 홀로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S. 2020-2학기 중앙위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와 서기연 연합에 대한 마음이 있고, 서울대의 진정한 부흥과 회개의 역사를 사모하시는 분들에게는 대표 홍영서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위원뿐 아니라 서기연 활동에 의견 및 도움을 주고 싶으신 분들에게서도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영서(자유전공 16)

## 중앙위원취임사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 서울대기독교인연합 중앙위원 서은진(예자공 16)입니다. 먼저 주의 크신 능력으로 볼드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제가 중앙위원을 섬기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서울대기독교인연합을 처음으로 알게 된 때는 2016년 1월 말쯤이었습니다. 새내기 대학 OT를 마치고 문화관 대강당에서 나올 때 몇몇 선배들이 휴지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그 휴지를 받아보니 서기연에 대한 소개와 새내기 신앙OT 홍보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소개 내용 중에 저희 과 교수님께서 짤막하게 소개 글을 적으신 것을 보고 저희 과에 기독교인 교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에 그저 신기해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한 행사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교회 외에 신앙인들이 따로 모이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캠퍼스에서 신앙 OT를 굳이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고, 오히려 교내의 기독교 행사가 유별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서기연과 그 어떤 접점도 없이 대학생활을 보냈습니다.

서기연과 떨어져 대학생활을 보내던 중 2019년에 가까운 교회 선배가 서울대기독교인연합에서 중앙위원으로 섬기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2019년 2학기부터 에너지자원공학과 기독교인 모임인 에기모의 대표 자리를 열렬하게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학부의 마지막 학기라서 마음의 부담감이 조금 컸지만 자리를 맡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 대표를 맡고 난 후에 중앙위원으로 있던 선배를 통해서 단대기연과 과기독 대표들의 모임이 있다는 것과 서기연에서 학내 기독교인 모임을 여러 모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기연에서 하는 활동들을 조금씩 알게 되었고, 캠퍼스

내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 애쓰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기독 대표님들과 단대기연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점점 서기연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서기연 공동체들을 향한 사랑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인해 학부 생활을 한 학기 더 하게 되었고, 때마침 2020년도 중앙위원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홍영서 대표님이 중앙위원을 부탁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위원이라는 자리가 멋있어 보이기도 했고, 마지막 학기를 열정적으로 불태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캠퍼스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아직 그렇게 크지 않은데 괜히 중앙위원이 되어서 진심이 없이 몸으로만 일을 처리하려고 하거나 학기 중에 바빠지면 괜히 불평불만을 갖게 되지는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름을 두고 기도할 때에 중앙위원이라는 자리가 단순히 저의 욕심에 의해 탐나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게 된다면 하지 않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셨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면 지금 내 마음 상태, 나의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중앙위원을 해보겠다고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명확하게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응답을 주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느낀 한 가지 확실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을 때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을 때에도 결국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 걸음을 인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면 중앙위원으로 섬기는 동안 사랑을 충만하게 부여주실 것이며, 나에게 시간이 부족하다면 시간을 확보해 주실 것이며, 나에게 열정이 부족하다면 새 힘을 주실 것이며, 자만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겸손하게 만드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의 한계를 가지고 주님

의 역사하심을 판단하고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소망과 내 의지를 기꺼이 드린다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의 뜻을 이뤄가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위원으로 섬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고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 앞에 불순종해왔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위대하신 이름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 불순종하며 내 욕심만 쫓으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저의 삶과 인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섬김의 자리를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내 목숨을 다해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사명인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지금 저의 모습은 보잘 것 없고 용기도 없는 작은 자이지만 이러한 저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을 알게 해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중앙위원으로 섬기게 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여유로운 학기를 보내고 있어서 중앙위원으로서 전혀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큼니다. 가끔은 눈앞에 놓인 다른 일들로 인해 마음이 여러모로 조급할 때도 있고, 아직도 내 마음에 사랑이 많이 부족한 것을 느끼며 부끄럽기도 하지만 점점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섬겨주시는 선교단체들과 간사님들, 교수님들, 단대기연, 과 기독교인 모임 등 많은 분들의 사랑과 열정이 제 가슴에 뜨겁게 다가오며 이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가 아닌 오직 주님의 뜻만이 서기연과 서울대 캠퍼스에 이뤄지길 기도하며,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서은진(에너지자원공학 16)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편지(1)

《진리는 나의 빛》 “신입생들에게 쓰는 편지”

살림!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대학부모기도회(이하: 서기모)를 섬기고 있는 이연희집사입니다. 2020 신입생 여러분을 주님의 품 안에서 환영하며, 입학축하드립니다.

합격의 기쁜 소식이 채 가시기도 전에 다가온 COVID 19로 새내기 새로배움터도 취소되고, 고대하던 입학식도 못 치르고, 울긋불긋 봄꽃 만발한 캠퍼스도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신입생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기쁘게 지성의 전당을 맘껏 활보할 그 날을 손꼽아봅니다.

저희 서기모는 서울대 캠퍼스의 복음화와 자녀들의 영적 충만함과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기독교 가치관을 위해 서울대 재학생 어머니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로 후원하는 모임입니다. 저희는 매달 첫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서울대 기숙사 920동에 있는 다인홀에서 정기기도회를 드리고 있으며 6년여의 기간 동안 66회의 정기기도회를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150여 명의 기도의 어머니들이 서기모 단체 특방에 모여 월~토까지 매일 저녁 10시에 합심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요일별로 영적으로 충만하신 기도의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한 기도, 서울대

캠퍼스와 학생들을 위한 영적, 도덕적, 학업 및 진로 등 내면의 강건함을 위한 기도, 서울대 복음 사역을 위한 기도, 서울대 기독교인과 기관들, 리더들을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등으로 대표기도를 준비해 올려 주십니다. 밤 10시 기도의 알람이 울리면 각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학부모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로 하나가 됩니다. 물론 해외에 계신 학부모님들까지도요. 이 외에도 기도를 사모하는 어머니들을 위해 매주 월요일 마중물기도회를 통해 더 깊은 기도의 시간을 나누기도 하며, 캠퍼스 월요노방찬양도 후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찬양을 사모하는 어머니들은 매일 정기기도회를 위해 찬양모임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이번 사태로 인해 저희도, 매년 신입생 입학식에 따뜻한 차를 드리며 신입생 어머니들께 서울대 학부모기도회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시는 신입생들께서는 부모님께 학부모기도회를 통해 함께 영적 교제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서기모 대표번호: 010-5964-9877)

서기모는 서울대 캠퍼스가 주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학

생들이 삶의 참 의미와 진로를 깨닫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 영적으로 강력한 끈을 이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온통 전염성 강한 바이러스로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았어도, 잠시 제자리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숨가쁘게 달려온 ‘나’에게 휴식과 위로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에서 늘 토닥이시며, 떨군 고개를 들어 넓은 지경을 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곁에서 기도로 응원하고 있는 지상의 부모님들도 언제든 기쁨을 열고 여러분을 지지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면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알맞은 때를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시길 곁에서 저희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연희(서울대학부모기도회회장)



2019' 신입생입학식 서울대학부모 학부모기도회 대학 연합 예배 기도회 홍보



학부모기도회 대학 연합 예배



학부모기도회 찬양단



정기기도회를 마치고



정기기도회 후 친교시간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편지(2)



To. 새내기 여러분들과 재학생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기연과 JOY를 섬기고 있는 정치외교학부 19학번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2020년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새내기 여러분들을 이렇게 환영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서울대학교에 입학하셨을 때 얼마나 기뻐할지,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내기 라이프’를 제대로 누리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쉬울지 깊이 공감하고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 제가 1년 전 새내기였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처음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좋기도 좋았지만, ‘서울대’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불안해하고 걱정 많던 겁쟁이었거든요. 외국에서 살다 온 저로서는 새로운 환경과 대학이라는 곳이 주는 설렘과 동시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금하게 마음을 가지지 않고, 스스로를 재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두가 다 같은 불안과 고민거리들을 갖고 대학에 들어왔고, 이제 막 사회에 첫걸음을 디딘 여러분에게 그러한 불안감과 ‘공포’는 당연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불안한 마음에서 멈추어 있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해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라든, 그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매 순간마다 우

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서 손 잡아주시고, 우리가 그를 찾길 끝까지 기다리신답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누군가가 옆에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대학생생활을 하면서 좋은 시절, 낙담하는 시절, 모든 순간마다 항상 마음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서울대에 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하게는, 특정한 기준을 넘어 서울대학교 학생으로 선택 받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 받은 자들이에요 - 단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기 위해 그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택함 받고 생명의 밝은 빛을 선물 받은 당신과 나.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이유가 이미 충분히 넘치지만, 우리가 더 기뻐해야 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모르더라도 우리를 서울대학교로 보내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 분명히 존재하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항상 묻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새내기 분들과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를 잘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제일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 그 계획을 묻고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소한 일상 속에서 매 순간마다 주님이 선물해주신 빛을 발하고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고 ‘나의 시나리오’가 아닌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새내기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박지연 (정치외교 19)

《진리는 나의 빛》 100호 발간 준비 안내

1994년에 창간된 본지가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오는 가을 100호를 맞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진리는 나의 빛>> 100호 기념문집도 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리는 나의 빛>과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추억을 포함한 다양한 주제의 글을 기고받습니다. 100호 발간을 빛내주실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대합니다.

문의: 학생기자 남명현 (010-4999-0350, nmh99@snu.ac.kr) / 학생기자 이재백 (010-2614-7556, woqor10@snu.ac.kr)

## 신입생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노과 20학번 최유안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에 제 삶의 이야기를 기고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무익한 제 자신이지만,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더욱 확신을 가지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쓰기로 결단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는 기독교를 싫어하셨고, 예술의 길은 실패의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몰래 다녀야 했고, 전공도 중학생이 되어 서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피아노 학원비를 내주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여서 많이 외롭고 힘든 핼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궁핍과 박해와 고난이 교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합당한 것을 주셔야만 할 것 같은 교만이 마음 속에 커져만 갔습니다.

예술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시기질투는 당연해져갔고, 세속적 성공을 거듭하면서 저는 점점 욕심에 가득 찼습니다. 예배를 자랑삼아 가고, 예배와 찬양을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직접 느껴지는 하나님의 경고가 없었기에 여전히 교만한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수시 1차 합격에 이르렀고, 이제 “내 인생 성공했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던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제 기쁨과 제 영광을 위했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첫 번째 입시에서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연주하기 전에 실수로 음을 쳐서 부정행위가 되는 등 하나님은 제가 교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입시에 완전히 실패한 뒤 저는 매일매일 폐인처럼 살며 악을 쓰고 목숨 때까지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단지 피아니스트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드린 삶이 부정당한 느낌이었습니 다. 너무 어리석었기에, 원망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제 외모, 능력, 심지어 믿음까지 모두 형편없어서 사회 생활은 커녕 가족들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성경 말씀 중에 “마음의 즐거움은 좋은 약이 되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잠언 17:22)라는 말씀이 삶으로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탄이 제 목덜미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집에 있는 게 힘들어서 기도원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당신의

음성을 꼭 들어야만 하겠다고 말하면서 4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며 놀랍게도 원망의 마음이 들면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생의 바닥을 맛보면서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에서 요셉이 불렀던 ‘You know better than I’ 찬양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보던 나의 눈을 감으니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제 미래에 대해 기도하게 될 줄 알았는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대학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선교단체 인터콥 신청을 허락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재수가 확정되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마냥 할 것 없이 집에서 우울한 생각만 할 바에야 선교단체 활동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인터콥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드미션예배를 갔고, 그곳에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고 소리치며 찬양하는 모습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진실로 행복해보였고, 부러웠습니다. 저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회색분자처럼 살아왔던 시간들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을 회피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주 하나님께 삶을 바친 청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인생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세상 눈치만 보던 제가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성공하는 친구들을 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사탄의 속삭임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치열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저는 사탄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선한 것이 역사할 때 사탄의 방해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콩쿨도 떨어지고, 어머니의 질책에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대학 한 번 떨어진 게 고난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복 받을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싫어서 사람을 찾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답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전과 같은 나를 발견하고 더 낙심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중 ‘욥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죽음 외에 모든 것을 잃었던 사람에 대해 읽으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읽으며 마침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죄악에 대한 벌도 아니고, 단련시키시는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욥기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도록 해주셨습니다. 비로소 헛된 속임수에서 벗어난 것 같아 기분이 좋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삶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를 결심했습니다. 선교 시기 때문에 수시밖에 없던 서울대 입시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어렵게 선생님과 부모님께 허락을 받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떨어지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고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난을 통해 얻은 귀중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NO!라고 해도, 하나님이 YES!라고 하시면 YES!다”였습니다. 이것을 붙잡고 동아시아로 나아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대학합격보다 재수 때 선교 간 것이 더 기적입니다. 많이 연약하고 죄가 많았지만, 그 연약함을 빛으로 꺼내며 나아갈 때 주께서 강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채 흠으로 돌아가는 인생들을 보면서, 내 꿈보다 하나님의 꿈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 아니면 깨닫지 못할 가치관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선교지만큼은 아니었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여쭙보았습니다. 재수하는 친구와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갔고, 주께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때에 따라 적절히 주셨습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지금 틀리다면 멈추고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입시에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1차 합격을 허락하셨고 저는 2차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2차 시험에서 지각과 실수로 제 생애 최악의 연주를 하고 나왔습니다. 연주를 5번이나 멈춰서 천막 뒤에서 심사위원의 한숨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서울대는 내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다 털어놓고 다른 대학을 보자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믿지 않으셔서, “나 서울대 붙으면, 찬양 사역자 해야 돼! 그 정도야!”라고 말했는데, 어머니는 책임질 수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설마 하며 다른 대학을 준비했고, 정말 피아노 인생을 그만둘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당신의 최고의 계획에 따라 어디로든 인도해주실 테니 걱정이 없었습니다. 욕심을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합격결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계획에 따라 뜻이 있으셔서 이 대학 가운데 보내심을 느꼈습니다. 걸어진 길을 보니 참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일으켜주실, 섬세한 과정으로 나 혼자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과 함께 살리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의 쟁기를 버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하나님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서울대가 지식과 능력으로서 1등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1등이 되는 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안 (피아노 20)

##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3)



매년 2월과 3월, 녹두거리와 낙성대는 술먹고 소리지르는 학생들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길바닥에는 위산과 섞인 부침개가 여기저기에 부쳐져 있지요. 많은 2학년, 3학년 선배들이, 술 좀 잘 마신다는 선배들이 아직 고등학생 티가 남아있는 1학년 후배들에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 시기입니다.

저 또한 그 때 분위기에 휩싸여서 술을 먹고 취해서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학년 때 술을 끊었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크리스찬들 또한 이 신입생 기간에 많이 술을 먹게 됩니다. 선배가 강요하기도 합니다. 술을 먹지 않으면 분위기가 싸~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술을 안 먹으면 아싸가 될 것 같은 불안감이 잠식해 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술을 먹고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동화되게 됩니다. 사실, 선배들도 그렇게 배웠고, 그 선배들에게 배운 문화를 신입생에게 전파하는 시간이

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크리스찬 신입생들이 이 시기에 조금씩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시기로 변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겪지 않은 학번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 20학번들은 이러한 문화를 겪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업이 인터넷 수업으로 대체되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당연히 매일 밤마다 열려야 할 술자리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60년 안에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즉, 전국의 20학번은 역사상 처음으로 술문화를 겪지 않은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세대가 있었나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20살 때, 신앙이 순수함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세대, 선배들의 강요를 겪지 않은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난 중에서도 준비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광야의 40년 동안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법궤마저 빼앗겼던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께

서는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은 미스바의 부흥을 가져와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각성시켰습니다. 사울 시대에 다윗을 일으키셨습니다.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를 준비시켜서 갈멜산의 통쾌한 역전극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20학번 신입생입니다. 신앙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던 20학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서울대 캠퍼스에 부흥을 가져올 것입니다.

20학번 신입생 여러분들, 1학년 초의 대학 생활의 낭만이 없는 것에 마음 어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결한 부흥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 사무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 때에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을 무장하셔서 다가올 부흥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김병호 박사(화학생물공학부 Post Doc.)

## 신입생의 글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20학번 신화영입니다. <진리는 나의 빛>에 기고할 “신입생의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고 많이 망설였지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글을 시작합니다. 제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글로 고백하기에는 아직 제 믿음이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진솔하게 제가 아는 하나님과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 교회를 향한 첫 발걸음

저는 6살 때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에 갔습니다. 유치동부 선생님들의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 덕분에 저는 교회라는 곳에 반해버렸습니다. 교회의 따뜻한 이미지에 이끌려 교회를 꾸준히 다니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보며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아버지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제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제 자신이 순탄하게 잘 믿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제 모습은 세상 앞에 정말로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주중에는 세상에 물들어 살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와 회개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식전 기도하는 것까지 있는 제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삶에서 하나님과 멀어져 가던 중 저는 비전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 아버지가 내게 주신 깨달음

중학교 3학년 때 믿음의 언니오빠들, 동생들,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마닐라 빈민지역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

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믿음의 자세에 대해 서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순간들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하기 어려웠던 전도를 함께하면 쉬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혼자서는 힘들었던 믿음 생활도 함께한다면 더 쉽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더 바르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비전트립에서 여자 교도소에 방문한 것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입니다. 계획에는 없었던 여자 교도소에 우연히 선교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놀라웠던 것은 교도소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었겠지만 저로서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 이전에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믿으면 모두가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교도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였습니다. 하염없이 흐르던 눈물에 찬양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비전트립 중에는 매일 아침 큐티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제 원망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는 말씀으로 제게 모든 사람에게 ‘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궁금해 하고 있던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느꼈고, 아버지께는 우리가 다 볼 수 없는 큰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실패가 있더라도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이고 낙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 잠시 흔들렸던 믿음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친구들은 하나둘씩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순간만큼은 학교생활에 좀 더 집중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이고, 아버지가 함께

해주셔야 잘 해낼 수 있는 삶이지만 저는 그 사실을 잠시 잊었습니다. 그렇게 자만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을 때 학교생활 중 말도 안 되는 실수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을 것입니다. 성적은 갑자기 떨어졌고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돌아보던 중 그제야 자만했던 제 모습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흔들림이 있었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 저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산다고 생각하니 무엇이든 두렵지 않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해주시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제게 주시는 이 사랑이, 이 행운이 언제 끝날까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계획이 있어 제게 이런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것인지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렵פות이 알 것도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이 학교에 데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바른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계획 가운데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고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 할 것은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마칠 것이니라” 이사야 60장 20절 말씀을 끝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신화영 (심리 20)

## 신입생들에게 보내는 편지 (4)



안녕하세요. 입학한지 어느덧 두 달이 가까이 되어가는 시점이지만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돌아보았을 때 4년 전 신입생으로 입학했던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에게 전해주고픈 한 가지를 제 이야기를 통해 풀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할아버지 때부터 농업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는 가정 배경에서 자랐지만, 농업에 담긴 생명의 가치를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고 막연히 마음을 먹은 것은 고등학교 때 무렵입니다. 당시 학부 과정에서는 다른 학문을 전공하고 있었지만 언젠가 농업과 교육에 관련된 전공으로 바꾸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대학원 과정을 알아보고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입학하던 시기, 드디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도 기도할 사람을 붙여주시길 것에 대한 기대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전공도 학교도 달라 모든 것이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믿음에서 나온 담대함이 저를 강하게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4년 동안 이어지는 석박사 과정은 그리 쉽지 않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문학을 전공했던 제게 통계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회의 자료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 막내로 살아가면서 대학원 분위기에 적응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 3-4개가 동시에 실행되는 프로젝트 가운데 선배들의 요구가 상충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속으로 동동거린 적도 많았고, 업무가 끝나고 원하는 공부를 시작하려하니 자정이 넘어있던 적도 빈번했습니다. 반면,

## 첫 마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예상과는 달리 농업교육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는 많지 않았고, 다른 세부 전공의 수요가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지 못하는 상황에 어려움을 느낀 적도 있습니다. 농업교육이라는 영역이 수요가 많지 않다는 점은 여러 번에 걸쳐 많은 제재를 주었고, 급기야 졸업 후 진로에 확신이 없어 다른 분야를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어색함 가운데 주위를 맴돌며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차였습니다.

그때 저에게 도전이 불러일으키진 순간을 기억합니다. 사경회에서 선교사님의 말씀 속에서 느껴진, 예수님과 동행하는 소소한 일상이 정말 부럽게 다가왔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일상이 쌓여 곧 길을 만들었고, 그 길을 걷는 선교사님이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만큼 말입니다. 그리고 깨달았던 것은 그 기쁨이 어느새 내 삶 속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껏 부푼 기대로 시작했지만 비교의식의 프레임 속에서 제대로 무언가를 갖추고 있지 않는 나에 대한 열등감 속에 빠져있었고, 조급함과 긴장감 가운데 속에서 한없이 작아져갔습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식어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참 부끄러웠습니. 정말 솔직하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입니다. 그때 제가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생각하게 되었고, 입학 때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습니. 방향하고 있었던 저의 연구와 진로에 대하여 주님께서 저를 첫 마음의 시점으로 돌이키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시 마음을 잡고 시작하게 된 연구는 주님과 대화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둘씩 열매를 맺어가고 있고, 이것을 디딤돌 삼아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

제 주위에 많은 대학원생들이 이 생활을 광야 생활이라고 부릅니. 풀뭇볼에 연단 받는 것과 같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첫 마음이라고 믿습니.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첫 마음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두뼉뼉 걷는 발자국은 곧 길을 만들 것입니. 우리는 각자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을 것입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발견한 꿈이, 다른 것으로 인해 묻히거나 더럽혀지지 않길 기도합니.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분께 날마다 길을 물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

정성지 (농산업교육 박사수료)

## 2020-2학기 중앙위원을 모집합니다

- 서울대 캠퍼스를 사랑하시는 분
- 서기연 연합에 마음 있는 분
- 서울대의 진정한 부흥과 회개를 사모하시는 분 모두모두 환영합니다

문의: 서울대기독교인연합 대표 홍영서 (010-6800-2798)

## 단과대학기독교인연합 소개

### 1. 경영대기독교인모임

대표: 김민우(경영학과 17)  
연락처: 010-2959-9779  
장소: 경영대 세미나실  
시간: 주 1회 저녁시간(미정)

안녕하세요! 경기독(경영대기독교인모임)입니다. 경기독은 경영학 전공생은 물론, 벤처경영 전공생도 함께 하고 있는 기도 모임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모임 장소가 경영대일 뿐,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전공, 학년, 나이 불문 언제나 환영입니다!

저희 경기독은 매주 한 번 모여,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즐겁게 식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가며 지칠 때 힐링타임으로 역할하는 소중한 모임이랍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도중, 잠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평안과 기쁨을 만끽하고 싶은 분들, 편하게 연락 주세요♡

### 2. 공대기독교인연합

대표: 여준호(재료 17)  
연락처: 010-9328-9598 / juneoy98@snu.ac.kr  
장소 및 시간: 기도모임별로 매 학기 정합니다.  
여러분의 시간표에 최대한 맞춰드릴게요.

관악캠퍼스 부지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공과대학의 11개의 학과, 실습과 수업으로 가득찬 시간표. 다 같이 모이는 것은 지리적으로, 시간적으로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모여봅니다.

정기모임은 아랫공대, 윗공대에서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기도모임이 있고, 이외에 과에 따라 과별 기도모임이 있는 학과, 학부도 있습니다. 가장 우리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공학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공학계의 빛과 소금이 되리라 믿습니다. 새내기, 윗공대 새내기, 재학생이지만 마음만큼은 새내기 모두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적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드릴게요.

### 3. 농생대기독교인연합

대표: 최성호(동물자원 18)  
연락처: 010-9503-1198  
장소: 미정  
시간: 학기 초 함께 논의하여 결정 (매주 1회 모임)  
기타: 페이스북 페이지 - "농생대 기독교인 연합"  
(<https://www.facebook.com/SNUCALS>)

농기연은 농생대의 기독교인들이 모여 교제하고 예배하는 모임입니다. 신앙, 진로 등 삶의 고민을 나누며, 농생대를 위해 기도해주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농대를 위해 새터꿀물봉사, 시험기간 간식나눔, 수시 면접 응원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농대 복음화를 꿈꾸는,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 일하고자 하는 누구나 환영입니다~~~ :)

### 4. 새벽빛(약학대학기독교인연합)

대표: 백찬양(약학 17)  
연락처: 010-8739-1193  
장소: 21동 1층 새벽빛 동아리방  
시간: 월요일 or 목요일

'저희 새벽빛은 약대 기독교인들이 모인 약대 크리스천 동아리입니다. 정기적으로 모여 다양한 교제를 나누고 기도하며, 학교안에서 즐거운 신앙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힘쓰는 모임입니다. 힘든 약대 생활을 함께 헤쳐나가보아요!!'

### 5. 사범대기독교인연합

대표: 이명찬(독어교육 18)  
연락처: 010-5599-5084  
장소: 12동 405호(1학기), 9동 307호(9동 리모델링 끝난 후부터)  
시간: 매 학기 시작 전 논의 후 결정

샬롬 :) 사범기연은 사범대 기독교인들의 에클레시아 모임입니다. 정기적인 모임으로는 매주 한 번 말씀 묵상, 기도 및 교제로 함께 하며 신앙적인 고민을 나누고 서로 중보 등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기뻐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외에도 신입생 기독교수와의 만남, 신앙과 학문 행사를 통해 타 단과대 기독교인들과도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답니다^^ 과 기독교우들과 함께 모이는 과기독모임도 이루어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D 사범기연 과기독 아름다운 영혼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범대 안에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0학번 그리스도인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6. 사회대기독교인연합

대표: 조지은(사회 18),  
연락처: 010-3115-0913  
장소: 사회기연룸(16-1동 305호)  
시간: 목요일 점심(학기마다 조정)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대기독교인연합, 사회기연입니다! 사회기연은 사회를 살아가는 크리스천으로서 신앙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회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그리스도께 다양한 형태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단체입니다. 사회기연은 친목도모(삶 나눔), 토론, 세미나 등의 프로그램을 매주 정기모임, 그 외 비정기 모임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같이 밥도 먹고, 엠티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연합을 쌓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또한 사회기연은 신앙과 사회에 대한 고민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 멤버들은 서로의 의견 교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고민에 대한 통찰과 실마리를 얻고자 하는 노력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로써 이해하고, 같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사랑의 교제를 통해, 나의 밖에서도 많은 삶을 안으시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 7. 자연대기독교인연합

대표: 미정  
연락처: 010-3954-0691  
장소: 504동 B114호  
시간: 과별 모임에 따라 다름!

자연대기독교인연합(자기연) 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기연은 504동 B114호에 전체 동아리방을 가지고 있고, 각 과별 모임의 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표는 없지만 과별 기독교인 모임의 대표들이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아직 다양한 시도들을 통해 자기연 모임을 천천히 세워나가고 있어요~ 또한 캠퍼스 내 크리스찬들과 함께 교제하며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임을 세우고 있어요!! 각 과기독별 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모이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연락 주셔서 문의 하시면 됩니다! ㅎㅎ 많이들 놀러주세요~~~

### 8. 예혼(생활대기독교인연합)

대표: 임예원(소비자 18)  
연락처: 010-2557-5513  
장소 및 시간:  
1) 아침 QT 모임: 주 1회, 아침 8시 손상희 교수님 연구실  
2) 점심 모임: 주 1회, 점심시간(11시 반 ~ 1시 반) 생활대 동아리방(222-B110)  
\* 동아리 모임은 매 학기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이 참석할 수 있는 요일을 선택

안녕하세요! 예수님의 흔적 예혼입니다:) 예혼은 믿음의 선후배들이 모여있는 생활대 정식 동아리입니다. 생활대라는 공간을 공유하는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학생들이 모여 서로 고민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예요! 예혼에서는 크게 2가지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일주일에 한번, 아침 8시 예혼 지도교수님 연구실에서 함께 QT모임을 합니다. (교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장블랑제리빵도 준비되어있어요ㅎㅎ) 또 일주일에 한번 점심시간에 식교제를 하고 자유롭게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대학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고 지칠 때, 또는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삶을 나누고 싶을 때, 심지어는 그냥 심심할 때라도 언제든지 찾아주세요! 예혼이 여러분에게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해요♡

### 9. 음악대기독교인연합

대표: 이현지(국악 16), 박소영(기악 16)  
연락처: 010-2469-0121, 010-2652-9084  
장소: 53동 312호  
시간: 금요일 오전 9시(이변학기 시간 미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음대친구들의 예배모임입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함께 말씀과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해요:-)

### 10. 인문대기독교인연합

대표: 서재현(영문18), 고은영(종교18)  
연락처 010-4055-5292(서재현),  
010-9811-6107(고은영)  
장소: 5동 114호 동아리방  
시간: 12:30~13:45 (주 1회 또는 주 2회, 매 학기 시간표를 조사하여 적절한 요일을 선택)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장 12절) <인기연>에서 새내기 여러분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홀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학 생활 가운데, 공부하면서 생기는 여러 신앙적 고민과 의문들을 함께 그 길을 걷는 동기들과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인기연>은 일주일에 한 번 점심 시간에 모여 기도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신앙의 고민을 나눌 뿐만 아니라 공부나 인간관계 등 여러가지 일상적인 고민과 이야기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며 서로의 대학 생활을 응원합니다. 새내기 여러분의 설레고 떨리는 대학 생활의 첫 걸음을 믿음의 공동체, <인기연>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 들어보고 싶고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인기연>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11. Shelter(자유전공학부기독교인연합)

대표: 김여경(자유전공 18)  
 연락처: 010-5131-1336  
 장소: 220동 제2동아리실  
 시간: 화요일 저녁 및 목요일 점심

안녕하세요! 자유전공학부 기독교인 연합 Shelter입니다! 쉼터는 다양한 개성을 갖춘 자전인처럼, 주님과 다양한 관계 속에 놓여있는 기독교인 학생들이 모인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에게 훌륭한 배움의 대상이자 신앙적인 자극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 1~2회 동아리실에서 점심식사나 저녁식사를 함께한 후, 찬양, 간단한 묵상과 교제를 진행합니다. 또한 아웃팅과 개인교제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눅 19:40)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

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눅19:37)’하고 싶거나,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을 찾으시거나 기도 받고 싶으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대표 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 추후 쉼터 동아리원을 통해 단독방에 초대받는 방식으로 동아리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주세요!

### 12. 간호대기독교인모임

대표: 이수현 (간호학과 17)  
 연락처: 010-5004-2444  
 장소: 의대 학생관 2층, 간호대 제2연구동 108호  
 시간: 미정

안녕하세요~ 간호대기독교인모임(간기모)은 간호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입니다! 간기모는 매 학기마다 연건기독교인연합(연기연) 그리고 연건 캠퍼스의 주 선교 단체인 CMF, IVF, JOY 소속 학생들과도 함께 연합하고 예배드리는 자리를 갖고 있으며, 이 외에 간호대생으로서 우리의 삶과 그리고 연건 캠퍼스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기를 소망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든 이 모임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간호대의 학사 진행 상황상 1~2학년의 관악 수업과 3~4학년의 연건 수업으로 분리되어 있어, 모임을 가지는 것이 다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학기부터 다시금 새로운 모임을 계획 중에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대표(이수현)에게 편하게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 CCC\_선교단체 이야기

#### 코로나 바이러스와 선교단체 CCC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 문장은 영화 인터스텔라(Interstellar, 2014)의 가장 유명한 명대사입니다. 인터스텔라는 세계 각국의 정부와 경제가 붕괴된 인류 멸절 위기 속에서 인류를 구원할 답을 찾기 위한 우주로의 여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영화 속 세상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인류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세계 각지로 확산되면서 세계는 멈춰 섰고 각국은 날마다 이례적인 사상 초유의 ‘특단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국제적인 여러 위기 상황들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등교에 의한 대면수업을 하지 않고 비대면 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활동이 대면으로 이뤄지는 학내 선교단체와 기독교인 모임이 등교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랑과 열정으로 답을 찾아 나섭니다.

우리는 상황 앞에 무기력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고전 10:13) 상황이 기적적으로 호전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모두 채우십니다(빌 4:17) 하나님께서는 더 힘들고 아픈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돕게 하시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들의 생활을 재건하게 돕는 용기와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힘입어 오늘도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꿈꾸며 사랑의 모임과 사역을 이어가는 선교단체 CCC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CCC는 'Building Movements Everywhere'라는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캠퍼스에 영적 운동을 일으키고자 전도, 육성, 파송을 목적으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CCC에는 순모임, 화요채플, 목요교육, 지부채플, 아침기도모임, 소순모임, 여우사이, MT, DT, IBS, 수련회, 단기선교까지 많은 모임과 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교가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대면 모임을 할 수 없어 모든 모임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시간 화상회의 온라인 플랫폼인 ZOOM과 인스타, 유튜브 등을 통해 오늘도 많은 모임과 사역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CCC의 가장 기본적인 모임인 순모임은 순장(멘토)과 순원(멘티)의 일대일 성경 공부 및 교제 시간으로,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본래는 대면으로 진행하지만 최근에는 ZOOM을 활용하여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이 아닌 만큼 형식적인 모임에 그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였지만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임인 만큼 대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픔과 고통이 힘들게 해도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사랑을 배워가고 실천하는 순모임 시간은 대면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진솔하고 따스하고 사랑이 넘치는 시간입니다. 밖에 나가 누군가를 만나기 어려운 시기에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사랑의 교제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학생회관 동아리방에서 진행되던 아침기도모임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오히려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기도모임은 말씀과 기도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일상의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침 8시 30분까지 학교에 등교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하지 못했던 모임입니다. 그런데 ZOOM이 공간적 제약을 없애주고 참여를 위한 시간을 단축시켜 이전보다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적 제약이 있다면 카메라와 마이크를 끄고 참여할 수도 있어 매일

아침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주의 말씀과 하루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기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나눔에 더 많은 지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ZOOM 플랫폼 특성상 찬양은 어려웠지만,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을 나누고 기도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모든 순서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CCC는 매주 화요일에 캠퍼스 내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함께 공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 온라인 모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어떠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가장 큰 상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힘써 모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특히 비대면 모임에 있어 ZOOM을 통한 전체 모임, 인스타 라이브를 통한 보이는 라디오 등 새로운 모임들을 시도하며 모임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의 모임은 주님의 은혜이기에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잘 이겨내고 기쁨으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대학교 CCC는 CCC 서울 남지구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남지구 소속 캠퍼스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지만, 현재는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비록 서로 다른 공간에 있지만 같은 시간에 찬양부터 합심기도까지 예배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방향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 소통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예배에 대한 집중도 떨어지고 참여율이 본래보다 저조하다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온라인 예배의 한계를 보완할 방법에 대한 모색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어떤 상황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놓지 않는 생활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CCC는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 미디어가 대학생들의 주요 문화, 소비, 소통 수단으로 자리함에 따라 미디어 사역을 담당하는 미디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가장 큰 어려움은 신입생 사역입니다. 이는 모든 선교단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으로 동아리소개제가 취소되고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신입생들과의 대면이 어렵게 됨에 따라 선교단체 홍보 및 전도 모두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CCC는 온라인 사역에 중점을 두고 SNS를 통해 신입생에게 도움이 되는 학교생활 정보, 동아리 홍보용 카드뉴스, 전도 영상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생-CCC 연결 플랫폼인 '미션허브(MissionHub)'를 통해 지인 중에 신입생이 있다면 해당 대학의 CCC에 소개하여 전도하고 전국의 CCC 공동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상부상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신입생 사역에 있어 선교단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고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혜와 방법을 알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며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답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역과 삶의 여정에 있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도움이신 당신께 돌아갈 것입니다. 순순히 어두운 밤을 받아들이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입니다. 답 없는 문제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와 도움을 바라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 여호와를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CCC 대표단

## JOY 선교단체 이야기

## 코로나19 시대와 선교단체 운동



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어떤 점에서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저는 선교단체 간사로서, 서울대 조이라는 특정 사례를 통해, 부족한 필력이지만 제 생각을 나눠볼까 합니다.

코로나19가 조이에 피해를 입힌 것은 '현장성'을 약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현장성은 크게 2가지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일상의 공유'입니다. 조이선교회는 대학생의 '일상'이라 할 수 있는 캠퍼스 시간에, 서로 만나 밥 먹고,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타 단체에 비해 노는 게 많아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겠죠). 물론 성경공부도 하고 책 모임도 가지지만, 저희는 인격적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각 개인을 존재로 바라보고 사랑하기 위해 일상을 함께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조이 스피릿의 두 번째 요소인 Others Second: '이웃 사랑'을 실천하죠. 두 번째로는 '공동체적 적실성을 가진 예배'입니다. 조이 사역에 있어서 JFM(Jesus First Meeting: 조이 예배 명칭)의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그 이유는 캠퍼스 선교단체는 지역 교회에 비해 균질적인 특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학업에서 기인하는 공통 경험들, 압박감과 성취감, 가족/사회의 시선과 자기이해 등, 서울대 조이어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 닮아 있고 같은 것으로 고민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그에 맞는 절절한 설교가 선포되는 것은 큰 힘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JFM 안에서 삶의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이에 맞는 메시지를 '같이' 들을 때, 조이어들은 그들 안에 공

동체 의식이 형성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현장성'이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정부가 감염병 경보 위기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자, 조이는 Zoom이라는 화상 회의 프로그램으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상 예배도 예배가 맞지만, 대면으로 만나 같이 호흡하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던 그 열정은 맛보기 힘들어졌습니다. 매일매일 동아리방에서 만나던 조이어들은 이제 집에서 서로 카톡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대면 만남이 크게 줄어들었고 혼자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대면 만남을 통해 서로 주고 받던 위로와 격려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 대신 자신의 내면에 몰입하고 그 내적 어두움에 매몰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알고 있는 현상이 조이어들에게도 찾아온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교단체 간사로서, 저는 어떻게 이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기독교 공동체의 본질을 지킬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민의 끝에 두 가지 방안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는 Zoom 예배 때, 조이어들이 메세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타 요소들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찬양을 부르기에 기술적 한계가 있으므로, 찬양 음원을 배경으로 틀어놓고 조용히 묵상하고 있고, 설교는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피피터를 도입했습니다. 찬양이 줄어든 것은 너무 아쉽지만, 조이어들이 위화감 없이 메세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 찬양도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피로도가 높은 조이어들의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투원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4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기 시작하자, 저는 개인 위생을 신경쓰면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경험하는 무기력함과 외로움은 온라인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면 만남으로 해결된다 생각하기에, 그들을 만나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분별해주고자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간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공동체 분위기를 쇄신할 수 없습니다. 학생 리더들의 헌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하게도 현

재 많은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원투원 리더로 자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조이 안에 더 진실한 관계들이 형성된다면, 전화위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기대를 품고 학생 리더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 저녁에 zoom을 키고 원투원을 위한 강의를 진지하게 듣는 리더들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아 사역을 진행한지 어느덧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평가하자면 아쉬움 반, 소망 반입니다. 비록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예전에 해온 사역 동력을 많이 잃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일상이 '캠퍼스'가 아니라 '내 방'이 되었다는 점, Zoom으로 수업을 오래 듣는 조이어들이 또 다시 Zoom으로 설교를 듣는 데서 오는 피로감과 무엇보다 공동체적 예배를 등한시 여기는 마음가짐까지, 정말 쉽지 않다 느낍니다. 그럼에도 소망이 있다 느끼는 것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그분의 백성들 또한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시대의 분위기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자들이-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있다는 사실은 위로가 됩니다.

이 소망과 아쉬움을 안고 다시 더 나은 모델을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아직 해야 할 게 많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만약 전문가들이 예측하듯이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지속가능한 모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온다면, 솔직히 매우 막막합니다.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알 수 없는 미래로 들어서는 것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향해 흘러가는 역사의 물길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고백해 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지혜를 힘입어 나아가기를 다짐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 봅니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이호준(조이선교회 간사)

## 학생기자 취임사



안녕하세요? 2020년도 <진리는 나의 빛> 신입 학생기자 이재백입니다.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반갑습니다. 취임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들 하나하나를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의 굴레를 벗어 던지고, 갓 성인이 되어 난생 처음 만끽하는 자유를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알지 못해 방황하던 새내기 시절, 주님께서 저에게 인문대기독교인연합과 JOY선교회를 알게 하셨습니다. 귀중한 만남의 은혜 속에서 믿음

과 내면의 성장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던 중, 문득 다른 공동체들의 모습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기연에서 듣게 되는 다른 선교단체들의 모습, JOY에서 듣게 되는 다른 단대기연들의 모습은 저의 호기심을 돋우었습니다. 다른 공동체들은 어떻게 연합하며 어떻게 하나님

을 알고자 하는지, 이 모든 단체들이 함께 모인 서기연은 어떤 곳인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던 차에, 감사하게도 저는 <진리는 나의 빛> 학생기자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기자라는 직분을 통해 다른 공동체와 서기연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 같다고 생각한 저는 거리낌 없이 그 제의를 수락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작업들을 통해 많은 것들을 보며 저의 기대가 채워짐에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올해로 서기연은 30주년을, <진리는 나의 빛>은 100호 발간을 맞습니다. 소위 말하는 겹경사가 있는 뜻 깊은 해입니다. 이런 뜻 깊은 해에 학생기자로서 섬길 수 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학생기자로서 남은 한 해 동안 서울대학교의 복음화를 위해 힘쓰셨던 선배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며 저 역시 같은 목표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서기연과 <진리는 나의 빛>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이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소통의 창으로서 다양한 지체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연합을 더욱더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하는 <진리는 나의 빛>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백(언어 19)